

오늘의 기사판

행사 (3일)
▲어린이날 맞이 진달래 및 야생화 식재=오전 10시30분 무안읍 물맞이골 일대.
▲고인돌축제기념 제 2회 연합회장배 배구대회=오후 2시 화순제일중 운동장.
▲어린이날 맞이 명랑운동회=오후 3시30분 극락초교 운동장. 아동 160명 참석해 운동회 및 선물 나누기.
▲제 8회 담양 대나무축제=오후 2시~6시 추성경기장.민속경기, 오후 2시 죽녹원, 대나무춤.
▲필암서원 진덕원·송의관 실시설계 보고회=오후 3시 장성군청 상황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오전 11시 광주시청 경제통상국 회의실. 평등 2차산단 2·3공구 실시계획 변경안 등 심의.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은빛 천사들의 행복교실=오후 2시30분 남구 보건교육실.
(4일)
▲제 84회 어린이날 '새싹들의 큰잔치'=오전 11시 광주 영주체육관.
▲임신 출산 및 유아교육전 세미나=김대중 컨벤션센터 201~204회의실.
▲여수해경, 어린이날 오픈하우스=4~6일까지 경찰서 상황실 등 청사 시설물 개방. 여수구항 해양공원 헬기 레플 시범, 합정공개, 합정승선체험(5~6일 오전 11~오후 5시 하루 2차례 오토도~국가산단~광양항~노랑해전지 승선 체험), 해양환경전시회 등.
▲제 8회 담양 대나무축제=오전 11시 추성경기장. 전통민속놀이(죽산매구트). 오후 2시 담양여중 대나무악기연주.

공연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3~6일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단체공연(3~4일) 1만2천원(할인권 소지자 1만원)
▲금관악기와 함께 하는 동요세상 스피리 앙상블=4일(목) 오전 11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움 미술여행'전=5월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조선대학교미술관 소장전=5월5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7·80년대 화가들의 작품과 조각, 서예 등 66점 전시.
▲인도세밀화전=5월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성군 대원사 티벳 박물관 소장 인도 세밀화 50점 전시. 인도 민속용품도 전시된다.

역사속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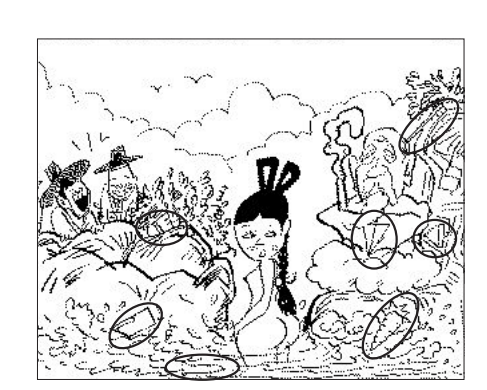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 태어남(1469)
▲중국 국민당정부, 중국대륙 공산당에게 내주고 대만으로 후퇴(1949)
▲국회, 이승만 대통령의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1960)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후보 1백10여만 표 차로 당선(1967)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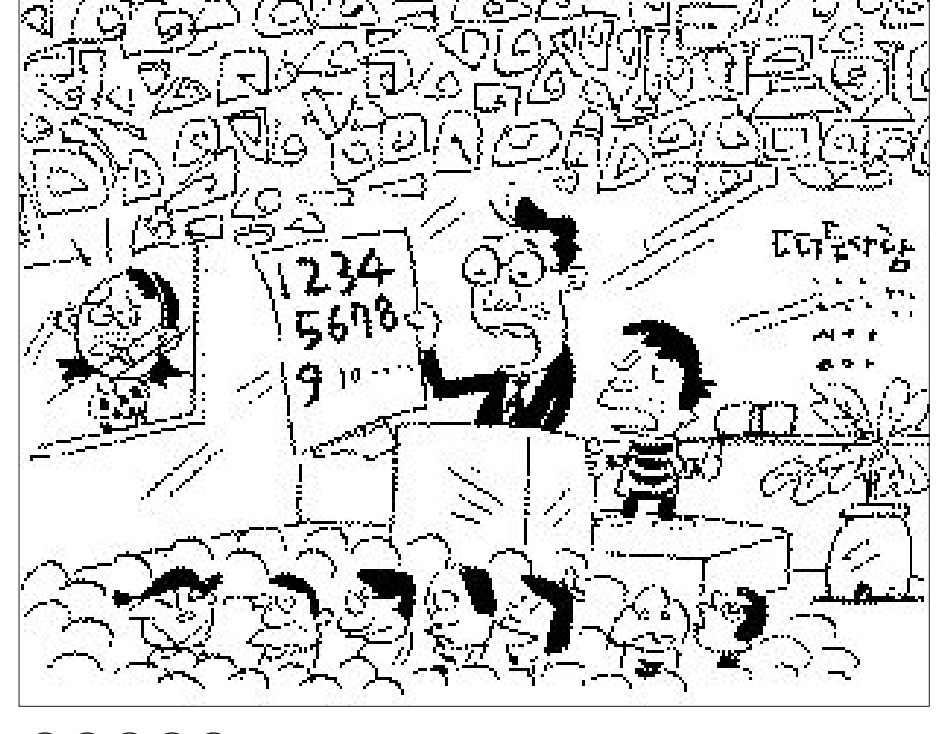
10. '탱크'로 불리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 이골프선수 가 기부·자선 활동을 잇따라 벌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도가 고향이며 지난 2000년 당시 유일한 한국인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한 후 지금까지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경주 ② 박찬호
③ 박지성 ④ 서재응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19 >



▲지나주 정답
팬이, 펜촉, 붓, 서들룩, 종이비행기, 흥당무, 칫솔



(찾아보세요) 성냥개비, 작은물고기, 붓, 서들룩, 팬이, 바늘, 양장단, 구두, 대접

작을수록 좋대요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 주셨다. '1에서 10까지 정성들여서 공책에 한 쪽을 써 오너라'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숙제를 하였다.
1 2 3 4 5 6 7 8 9 --- 10 다음날 학교에 갔다. 선생님께서 숙제검사를 하셨다. 아이의 숙제장을 보고 선생님은 의아해하셨다. "에야, 난 1에서 9까지는 큼직하게 잘 써놓고, 10은 왜 이리 조그맣게 썼니?" 아이가 대답했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10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지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윤숙자·진도근 진도읍

바둑소식
한국, 亞바둑대항전 2연승
한국이 2일 일본 뱃부(別府)에서 열린 제5회 CSK배 아시아바둑대항전 제2라운드에서 대만을 4-1로 가볍게 따돌리고 리그 2연승을 올렸다.
이창호 9단은 판상치 7단을 179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압축했고, 이세돌 9단은 왕망원 9단을 214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꺾었다.
박영훈 9단이 왕리청 9단을 178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제압한 데 이어 고근태 5단은 천스위엔 5단을 193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따돌렸다.
최철한 9단은 아슬게도 장쉬 9단계 176수 만에 흑 불계패를 당했다. 한국은 3일 중국과 최종라운드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포석의 기로
<최강부 개인전> 준결승 제 2보(17~33)
白 김복현 (5단) <가이거기회>
黑 기용성 (5단) <하동화력발전소>
이창호 9단이 지난 1일 일본 뱃부에서 열린 제 5회 CSK배 아시아바둑대항전 1회전에서 패배했다. 얼마 전 제7회 농심신라배 최종국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데 이어 난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적인 요다 9단과의 상대 전적도 8승10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상으로 돌아간다. 두 대국자는

바둑소식
한국, 亞바둑대항전 2연승
한국이 2일 일본 뱃부(別府)에서 열린 제5회 CSK배 아시아바둑대항전 제2라운드에서 대만을 4-1로 가볍게 따돌리고 리그 2연승을 올렸다.
이창호 9단은 판상치 7단을 179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압축했고, 이세돌 9단은 왕망원 9단을 214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꺾었다.
박영훈 9단이 왕리청 9단을 178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제압한 데 이어 고근태 5단은 천스위엔 5단을 193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따돌렸다.
최철한 9단은 아슬게도 장쉬 9단계 176수 만에 흑 불계패를 당했다. 한국은 3일 중국과 최종라운드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Year (e.g., 36년생), and Description of the zodiac sign and its characteristics.

굿모닝 잉글리쉬 <638>
You know what? 너는 알고 있니?
A: You know what? B: What?
A: I think this letter has to be retyped. B: What's wrong with it?
A: First of all, there are too many types.
A: 너는 알고 있니? B: 무슨 일인데?
A: 내 생각에는, 이 편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B: 무슨 일인데 그래?
A: 첫째, 철자가 너무 많이 틀렸어
You know what? = Guess what?
I think ~ = 내 생각에는 : 문장 핵심내용을 이끌어내는 연결사 가능
I think ~ = I guess ~ = I suppose ~
first of all = 무엇보다도 먼저
what? (뭘?) = Yes? (그래?)

오하이오 니혼고 <638>
それはそれは、危機一〇ってどこだったね
그건 위기일발이었구나
A: 昨日(きのう)、すごい〇(つよい)風(かぜ)がふいていただろう。 B: うん、そうだったね。
A: それで、その風(かぜ)で留(と)めてあったネジが 外(はず)れたかなんかで、上(うえ)から、看板(かんばん)が 落(お)ちてきたんだけど、もう少(すこ)して、頭(あたま)にあたるどころだったんだ。
B: いやあ、それはそれは、危機一〇(きまいった)ってどこだったね
A: 어چه 대단히 강한 바람이 불었었지? B: 음, 그랬었어.
A: 그래서 말야, 그 바람 때문에 채워져 있던 나사가 빠진 건지 뭔지 때문에 위에서 간판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더했으면 머리에도 맞았을 거야.
B: 아, 그거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이었구나.
留(と)める : 채우다, 잡다
ネジ : 나사, 볼트
外(はず)れる : 빠지다, 벗겨지다, 풀어지다, 떨어지다

니하오 쑹구위 <386>
这是我的名片
제 명함입니다
A: 这是我的名片。
B: 谢谢。
A: 这是我的名片。
B: 谢谢。
A: 这是我的名片。
B: 谢谢。

한자 이야기 <956>
浮動票 (부동표)
뜻, 부, 움직임, 등, 표
부동표(浮動票)는 떠서 움직이는 표, 즉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를 말한다.
부(浮)는 수(水)+부(孚: 덮다), 수면을 덮는 것처럼 '뜨는' 것이다. 동(動)은 력(力)+중(重: 발로 땅을 차다)으로, 발로 땅을 차는 동작이다. 표(票)는 요(要: 가는 허리)+화(火)로, 가는 불뿔이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습에서 '불뿔 튀다'나아가 '표'를 나타내게 되었다.
부동(浮動)은 떠서 움직인다,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동표는 물위에 떠있는 것처럼,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표이다.
현대의 도시 젊은이들은 정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투표율(投票率)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성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선거 당시의 기분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나 후보자를 쉽게 바꾼다. 따라서 부동표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나가 선거의 당락(當落)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부동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